

시간창고에 가면 오래된 '나' 를 만날 수 있다

《시간창고로 가는 길》 펴낸 신현림씨

시인이자 사진작가인 신현림씨(41)는 박물관에서 우리네 삶에서 비켜선 듯 멈춰 있는 시간을 읽는다. 모든 것이 속절없이 흘러가는 것 투성이인데 그는 '시간창고' 로 가서 고졸한 유물들의 향기와 그들이 들려주는 속삭임을 들으라고 말한다. 《시간창고로 가는 길》(마음산책)은 그가 8개월 동안 전국 곳곳의 박물관을 돌아다니며 유물과 자연 그리고 삶을 성찰한 박물관기행 산문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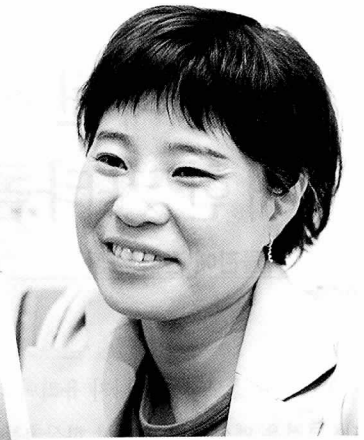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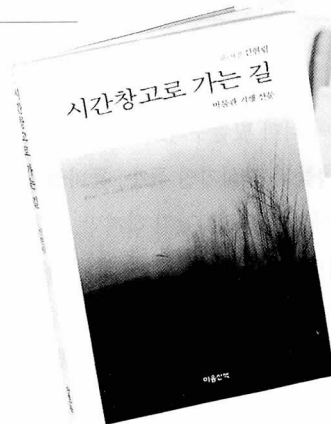
등잔박물관 등 독특한 박물관들 한 자리에 불러 모아

박물관 하면 으레 떠오르는 고답적인 분위기는 이 책 어디에도 없다. 그는 강원도부터 전라도까지 국토 곳곳에 흩어진 박물관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은다. 그리고 그 인상을 허물없이 털어놓는다. 박물관 이야기를 하다 느닷없이 책 속으로 빠져드는가 하면, 지순한 사랑과 냉엄한 죽음이 공존하는 삶의 본질을 들여다보기도 한다. 책 속에 등장하는 박물관은 모두 46곳. 등잔박물관, 화석박물관, 책박물관, 축음기박물관 등 독특한 주제를 담은 박물관부터 지역색을 고스란히 간직한 향토박물관들이 정답게 어깨를 걸고 있다.

“넘쳐나는 일회용 이미지들 속에서 정신없이 살다보니 무언가 삶에 생기를 주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고품격 이미지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런 갈망을 채워준 곳이 바로 박물관이었어요. 쉽없이 박물관 문턱을 드나들면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던졌죠. 또 우리 문화가 세계적인 것이 되기 위한 첫걸음도 이곳을 통과해야 한다는 확신도 얻었구요.”

박물관 기행은 이런 열정에서 비롯됐고, 《조선일보》에 기행문을 연재하면서 본격화됐다. 그 시절 그의 박물관 탐방엔 뱃속의 아기도 동행했다. 하지만 그는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았다. 일부러 잘 알려지지 않은 외진 곳, 국립박물관이 아닌 사립박물관들의 문을 두드리고 잊혀진 시간들을 불러내 이야기를 나눴다.

'시간창고로 가는 길'이란 제목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 그는 박물관의 유물만 이야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박물관을 오가며 길에서 만난 자연과 사람들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영암 농업박물관을 찾아가는 길에서 함초롬한 초가지붕을 보고 “뻘뻘한 도시의 건물에 갇혀 살” 땀 몰랐던 “생의 감촉”을 느낀다. 또 정신과 의사와 이야기할 때만 집중할 수 있다는 택시기사와 만나 현대인의 소외감, 외로움을 읽어내는 등 박물관 밖 일상의 풍경들도 살갑게 다독



신현림씨

마음산책/85면형/232면/9800원

거린다.

“박물관을 돌아보면서 인터넷을 통해 얻는 것은 정보일 뿐 지식은 아니라는 생각

이 들었어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투박한 질그릇 속에 담긴 조상의 숨결과 맞대면해 얻는, 체험을 바탕으로 한 지식이 참지식이란 깨달음이죠. 하지만 아직도 박물관을 우리 삶과 별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박물관에서 법고창신의 지혜 얻어

그는 이제 박물관이 유물전시실이라는 고루한 외투를 벗어야 한다고 말한다.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마

당이 될 때 박물관이 체험학습의 장으로 되살아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것에 대해 모르는 것만큼 두려운 일이 또 있을까? 그는 문득문득 이런 질문을 던지며 내가 누구인지, 우리 문화의 시원은 어디인지 확인해보라고 다그치기도 한다.

그가 찍은 사진은 박물관에서 느낀 인상들을 상징적으로 잡아낸다. 이를테면 뷰파인더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거털뿔이랄까. 시인의 감수성이 오롯이 묻어나는 크고 작은 사진들에 달린 사진설명문들도 흥미롭다. 그는 금동불상을 바라보는 천진한 아이의 모습에서 아기부처의 현신을 보고, 덕포진 교육박물관에서 라일락향기처럼 번지는 정겨웠던 시절의 수업종소리를 듣는다. 그런 그에게 박물관은 결국 무엇일까.

“박물관은 답답한 일상의 숨통을 트워주는 곳이죠. 뭔가 일이 풀리지 않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찾아가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곳. 법고창신의 지혜를 일러주는 아름다운 시간창고입니다.”

책의 말미는 그가 소개한 박물관들의 주소와 연락처, 휴관일 등을 곁들여 갈무리했다. 그걸 보면서 박물관에 대한 안내는 두 쪽 분량의 부록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가 박물관 기행을 통해 정말 하고 싶었던 말. 그것은 바로 소리 없는 몸짓으로 우리를 부르는 박물관의 유물들과 시간창고로 향하는, 흠뻑 날리는 길 위에 펼쳐져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박옥순 기자